



홍수연

캔버스 위에 독특한 무중력의 공간을 창조하는 작가 홍수연은 비정형적 형상들이 부유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추상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순한 배경 속에 레이어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화면은 깊고 무한한 우주 같은 공간성을 획득한다. 작가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에서 활동하다가 2002년 서울로 돌아와 금호미술관, 포스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작업하고 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을 비롯한 주요 미술관들과 웨스턴조선호텔 등 유수의 국내외 호텔들,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한국대사관들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매끈한 단색조의 화면 속에 겹겹이 중첩된 모호한 유기적인 형태들이 캔버스 위를 천천히 부유하는 듯하여 초현실적이면서 몽환적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것은 현미경 속의 원형질이나 흩날리는 꽃잎, 우아한 발레 동작 등 관객들마다 각기 다른 상상력과 감성을 끌어낸다. 무엇보다 그러한 동적 움직임은 자신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우리 내면의 문제, 살아있음을 추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안주하거나 익숙함에서 벗어나되 늘 세계 안에서 발란스를 맞춰 나가는 존재의 내적 변화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작업은 비정형과 정형, 빛과 어둠 사이, 즉흥과 계획, 정신과 몸, 그리고 기쁨과 슬픔 같은 우리네 현실 감정의 중간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다.

일견 연약하고 부드러운 화면은 볼수록 힘이 있고 구성이 탄탄한데, 그것은 홍수연만의 새로운 회화의 방식에서 기인한다. 붓으로 그리는 것은 단색의 배경뿐, 안료를 캔버스에 붓고 캔버스 자체를 기울여 중력에 의한 흘리기로 형태를 결정한 다음 말리기를 반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캔버스를 기울여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연성 또한 개입되지만 중요한 것은 힘과 속도의 철저한 균형과 조절이 필수인 작업이다. 이렇게 작가의 수고로운 수행적 과정을 거쳐 비로소 겹겹이 쌓아 올려진 안료의 층들은 그 아래 지나간 흔적들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변화해갈 수 있다. 작품들은 이렇게 조화와 균형, 엄숙함 가운데 중력에 의해 생성된 형태들은 이제 중력을 벗어난 듯 떠돌고 중첩하며 때로 폭발한다. 그것은 우주 공간,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공간에서도 일어난다. 살아있음은 곧 움직임이다. -Gallery JJ-

b.1967

- 1995 Pratt Institute, Fine Art 대학원 졸업
-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Public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우민아트센터, 서울대학교미술관, 연세대학교박물관, 금호미술관, 상하이한국총영사관(중국), 네덜란드한국대사관(헤이그), 인도한국대사관(뉴델리), 포스코센터(서울,광양), 삼성서초사옥, 웨스턴조선호텔, 해비치호텔(제주), 롯데호텔, 노보텔(대구), 보바스병원 & 더 헤리티지, (주)한섬, (주)신세계, (주)한국가스해운, 삼성호텔, IFC 콘래드호텔, 포시즌스호텔, 아난티코브 힐튼호텔 외 다수



Illuminate #13, 2021,
152 x 130cm

Sooyeon Hong

Sooyeon Hong creates weightless space and atypical forms that gently float in her abstract painting. The picture plane acquires deep and infinite spatiality as layers overlap one another. She has been consistently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including solo shows at Kumho Museum and POSCO Museum since her return to Seoul in 2002 after she graduated from Pratt Institute in New York. Her works are housed in major art museums, hotels, and embassies such as MMCA, SNU Museum of Art, and Chosun Hotel.

The ambiguous forms layered on a smooth monochromatic surface appear to float slowly, creating a surreal sensibility. They evoke different imaginations and feelings from each viewer like scattering petals or elegant ballet. Above all, such dynamism may seem like our inner problems from perpetual changes and balances, and its expression of life in abstract language. It is to detect the internal movements of beings that deviate from familiarity yet are balanced. Her work is at the crossroad between stereotypical and atypical, light and gloom, improvisation and calculation, body and mind, and joy and grief.

The frail and mellow picture plane appears more solid and vigorous the longer one stares due to Hong's way of constructing it. Her painting process begins with pouring pigments onto the canvas, then giving forms and layers by tilting and drying repeatedly instead of brushstrokes. Each step yields fortuity in which the balance and control of power and speed are crucial factors in creating her work. Through this laborious process, the strata of pigment continue to change, leaving traces of the passing time. Amid harmony, balance, and solemnity, the layered forms created by gravity then take off, overlap, and sometimes explode like the universe and our inner minds. To live is to move. -Gallery JJ-

b.1967

- 1995 M.F.A Pratt Institute, Fine Art
- 1992 M.F.A Hongik University, Seoul
- 1990 B.F.A Hongik University, Seoul

Public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eoul), MMCA Art Bank(Gwacheon), Wumin Art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s, Yonsei University Museum, Kumho Museum of Ar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Hagu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New Delhi), POSCO Center(Seoul, Gwangyang), Samsung Town, Westin Josun Hotel, Haevichi Hotel & Resort(Jeju), Lotte Hotel, Novotel, Bo Bath Memorial Hospital & The Heritage, Handsome, Shinsegae, Korea Gas Shipping Corporation, Samsung Hotel, IFC Conrad Hotel, Four Seasons Hotel, Ananti Cove Hilton Hotel and etc.